

# 총탄 구멍난 유리창·취재수첩·일기장... 오월의 참상 생생한 기록

## 5·18 기록관 개관... 세계기록유산 등재 8만여점 전시

5·18 세계기록유산이 전시·보관될 5·18 기록관(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가톨릭센터 건물)이 13일 개관한다.

5·18 기록관엔 지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항쟁과 이후 진상규명 활동 등이 담긴 공문과 재판·진료·보상기록, 성명서·취재수첩·시민일기·희생자 유품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기록물 8만 점 이상이 전시된다.

이 중에는 5·18 당시 무차별적으로 기총 사격을 가했던 정황이 담긴 자료도 있다.

5·18 기록관 1층에 전시된 총탄 구멍난 유리창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 금남로 3가에 위치한 광주은행 옛 본점 건물 유리창으로, 당시 계엄군이 총탄이 도심 한복판 건물과 도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날아들었던 참극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가로 1.6m·세로 1.7m 크기의 유리창에는 지름 5cm 크기, 가로

## 재판·보상기록·美비밀문서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도

0.8m 세로 1.7m의 작은 유리창 2장에는 지름 2.5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어 당시 총탄이 관통한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는 광주은행이 1997년 본점을 이전하면서 광주시에 기증, 보관돼 있다가 이번 5·18 기록관 개관에 맞춰 처음으로 공개됐다. 광주은행은 이같은 총격 피해가 1980년 5월 20일께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5·18의 참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자료도 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김현경(여·47)씨는 아버지인 김영택 전 동아일보 기자로부터 공수부대의 만행을 취재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 이를 일기로 남겼다.

김씨가 80년 5월 18일 쓴 일기장엔 '도청에서 난리가 났다고 한다. 그래서 난 교정소에도 못 가고 벌벌 떨었다. 젊은 언니, 오빠들을 잡아서 때린다는 말을 듣고 공수부대 아저씨들이 잔인한 것 같았다. 하루빨리 이 무서움이 없어져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5·18 35주년 기념식을 반쪽짜리로 전락케 한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도 전시된다.

5·18 기록관 2층 전시실에 전시된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는 사본, 악보를 만든 작곡가 김충렬씨는 이날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기증 일정을 정한 뒤 악보 원본을 5·18 기록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한편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5·18 기록관에는 5·18 당시 국내 보도와 일본 등 외신 보도 내용, 미국의 비밀문서, 국내 시민사회·재외동포 성명서, 각종 현장 사진·영상자료 등도 함께 전시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중 인권관련 기록물 20여건도 볼 수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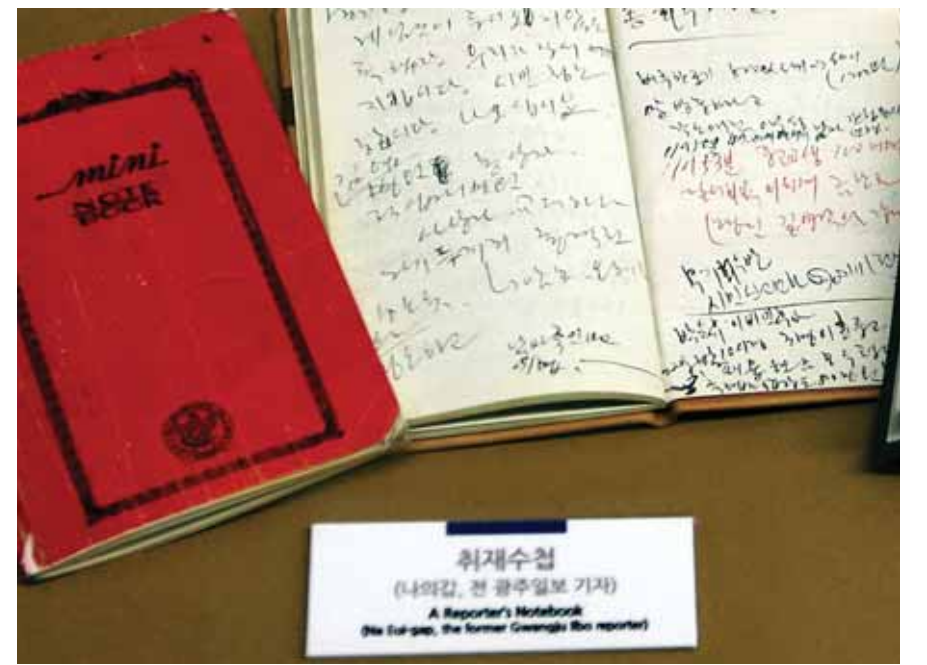
5·18 당시 계엄군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5·18 기록관의 내부.



1980년 5월 당시 도심 한복판으로 계엄군의 총탄이 날아든 광주 금남로 3가에 위치했던 광주은행 옛 본점 건물 유리창의 모습.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



5·18 당시 항쟁 현장을 취재했던 나의갑 전 광주일보 기자의 수첩.

#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638만명 평균 7만원 환급

## 이달 급여에 더해 지급... 지방재정법·상가 임대차보호법도 처리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올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환급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금 4560억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 1000원 가량이다.

국회는 또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상가 권리금의 보호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

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회는 노골화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철락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는 또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도 채택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3건의 법안과 2건의 결의안 외에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63

개의 법안은 본회의 문턱에서 여전히 발목이 잡힌 채 오는 28일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더욱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을 감안하면 28일 본회의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류하는 법안 중에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이 적지 않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재정법 통과, 누리과정 급한 불 껐지만... 광주교육청 예산 이달부터 '바닥'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무상보육 정상 운영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광주교육청의 경우 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를 받더라도 교육청이 보증하는 지방채 발행에는 반대하고 있어 올해 어린이집에 지원할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광주교육청이 어린이집에 지원할 보육예산은 월 60억원으로 현재 724억원

을 총당해야 한다. 유치원 지원 예산 중 2개월치를 빼내 어린이집 예산에 편성할 광주교육청은 3~4월분 예산도 광주 시에서 120억원을 빌려 임시변통했다.

이날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목적예비비 5천64억원이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면 이 가운데 149억원이 광주교육청에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광주에서 빌린 120억원을 상환하고 나면 29억원밖에 남지 않아 이달부터 지원해야 할 보육예산을 또 걱정해야 할 처지다. /연합뉴스

수천만송이 세계명품장미, 그 동화나라 속으로

함께해요! 희망곡성

# 제5회곡성 세계장미축제

INTERNATIONAL ROSE FESTIVAL GOKSEONG

2015. 5. 22(금) - 31(일) 장소: 곡성섬진강기차마을

**개막식**

- 일시: 2015. 5. 23.(토) 16:00
- 장소: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장미무대
- 내용: 내빈소개, 개막선언, 대화사, 축하 등

**주요행사**

- 꽃꽃놀이
- 빨강장미 '향기 드림 콘서트'
- K-POP 댄스 공연
- 장미퍼레이드
- 동화주인공 캐릭터 코스프레
- 장미 사랑등 달기
- 기타 부대행사 등

곡성군 GOKSEONG COUNTY